

# TEXTILE & FASHION TREND ISSUE



## FASHION 소싱 및 생산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 보브, 지컷 인수한 신세계톰보이, K패션 전문회사로 거듭<sup>(1)</sup>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여성복 '보브', '지컷' 관련 유무형 자산 포함 영업권 일체를 자회사 신세계 톰보이로 양도했다. 신세계톰보이는 기존 여성복 '스튜디오톰보이'를 비롯해 '보브', '지컷'까지 여성복 마켓에서 시장 지위를 높이는 한편, K패션 전문회사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여성복 부문을 신세계톰보이로 양도함에 따라 수입 브랜드와 뷰티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브랜드 양도 가액은 583억원으로 확정됐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세계 톰보이를 K패션 사업 전문법인으로 육성하고, 자체 브랜드의 가치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신속 과감한 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신세계톰보이는 '보브', '지컷', '스튜디오톰보이' 컨셉과 디자인 전략을 재정비한다. 디자인과 마케팅 역량 강화, 최적 투자 등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메가 브랜드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 진출

까지 꾀한다는 전략이다. '스튜디오톰보이'는 지난 3월 파파치에 공식 브랜드관을 개설했고, '보브'와 '지컷'도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이러한 브랜드 전략과 함께 그동안 각각 진행했던 소싱과 생산 기능을 통합해 원가 절감을 달성하는 한편, 매출 규모가 작은 지방 백화점에는 여성복 통합 스토어를 열겠다고 밝혔다.



## FASHION 케어링 그룹, '발렌티노' 지분 30% 인수<sup>(2)</sup> 메이홀라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5년 뒤 100%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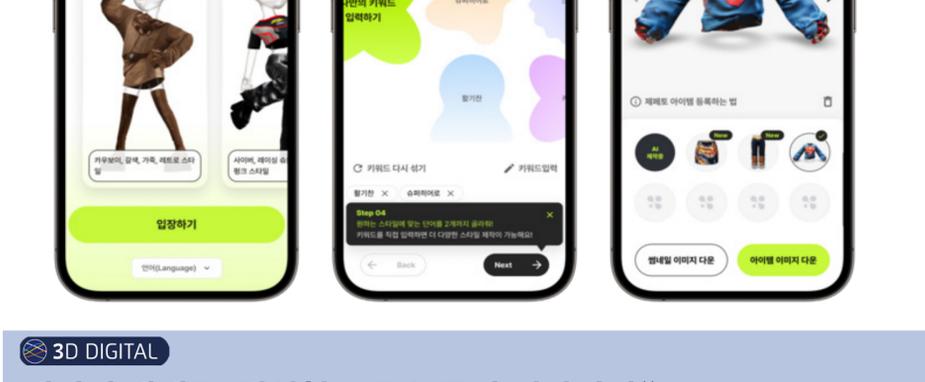
럭셔리 그룹 케어링(Kering)이 '발렌티노' 지분 30%를 현금 17억 유로(한화 약 2조 4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거래는 케어링과 '발렌티노'의 모회사인 메이홀라(Mayhoola)간의 단순한 거래가 아닌 광범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메이홀라는 케어링의 주주가 되며, 케어링은 2028년까지 '발렌티노'의 지분 100%를 인수할 수 있는 옵션 계약까지 성사시켰다. 럭셔리 브랜드 '발렌티노'는 1960년 로마에서 시작해 오프퍼퓸르에 뿌리를 둔 아이엔디 럭셔리 하우스로 성장했다. 오프퍼퓸르, 기성복, 가방, 신발 등 액세서리 컬렉션과 아이웨어, 뷰티 라인업을 전개한다. 현재 25개국 이상에 211개 직영 매장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14억 유로(한화 약 1조 9734억원)를 기록한 바 있다. 프랑스와즈 앙리 케어링 회장은 "이번 지분 인수는 메이홀라와의 광범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환이다. 우리가 '발렌티노'를 개발하고 자코포 멘투리니가 계속 브랜드를 이끌어 갈 경우 강력한 브랜드 시너지 효과와 생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라치드 모하메드 라치드 메이홀라 CEO 역시 "'발렌티노'는 우리의 관리 아래 바람직한 럭셔리 브랜드로 기반을 강화했고, 케어링과 함께 다음 단계 브랜드를 계속 강화하게 될 것이다. 케어링과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투자를 모색할 수 있는 다른 잠재적 기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3D DIGITAL

### '데시구엘', AI 디자이너의 온디맨드 컬렉션 공개<sup>(3)</sup> 고객 주문 후 생산, 100% 지속가능한 소재 제작

강렬한 프린트와 패치워크 디자인이 특색인 스페인 브랜드 '데시구엘(Desigual)'이 AI와 크리에이티브를 활용하여 디자인한 최초의 온디맨드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온디맨드 컬렉션은 '데시구엘' 혁신 프로그램인 Awesome Lab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데시구엘' 크리에이티브팀이 제작하고 AI의 지원을 받아 디자이너 완성했다. 여기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조되는 온디맨드 시스템을 도입해 제품 재고 감소를 실현하고, 새로운 혁신을 이룬다는 전략이다. 온디맨드 제작은 고객이 주문 후 맞춤 생산을 하는 것으로 대형 기성복 브랜드에서는 쉽지 않은 방법이다. 데시구엘은 온디맨드 컬렉션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그들의 가치와 더 일치하는 방식으로 업계 흐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시구엘' 온디맨드 컬렉션은 의류, 액세서리 라인으로 구성되었고 약 90일 만에 생산이 완료된다. 소재는 100% 지속 가능한 소재로 제작된다. 구매 고객은 상품이 배송되기 전에 생산 공정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데시구엘'은 현재 이 프로그램이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향후 더 많은 시장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3D DIGITAL

### 네이버 제페토, 생성형 AI로 누구나 디자이너<sup>(4)</sup> 다양한 창작물로 크리에이터 생태계 지원

생성형 AI로 누구나 아이템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네이버제트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창작물로 크리에이터들의 아이템 제작을 지원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3D 콘텐츠 제작 기술 스타트업 리콘랩스와 협업해 진행하는 것으로 제페토 이용자 누구나 특별한 기술력 없이 높은 수준의 아이템을 창작물을 만들어 볼 수 있게 됐다.

제페토 리콘랩스의 3D 크리에이션 솔루션 '3D 프레스'를 적용해 원하는 패턴, 색상, 컨셉 등 키워드를 선택하거나 명령어를 입력해 아이템 텍스처를 추출하고, 이를 제페토 스튜디오의 아이템 템플릿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각 30가지의 키워드와 명령어 입력 선택지를 마련해 이용자들이 개성있는 아이템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제페토는 이번 창작물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8월 13일까지 생성 AI 창작 이벤트 '도전! 제페토 디자이너'를 개최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제작된 아이템은 제페토 플랫폼에 정식 아이템으로 등록될 수 있다. 공식 심사 절차를 거친 후 우수 수상작으로 선정된 창작물은 아이템상 내 별도 시카테고리에 업로드된다. 한편 제페토는 아이템 제작 템플릿 '제페토 스튜디오', '제페토 빌드업' 등의 창작물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 TEXTILE 2024 S/S, MZ 타깃 Y2K 트렌드 지속<sup>(5)</sup> RGMS 키워드 - 레트로 터치, 젠틀 썬머, 마인드풀, 소프트 유틸리티

2024년까지 MZ 세대를 겨냥한 Y2K 트렌드가 지속될 전망이다. 글로벌 뷰티 ODM 기업인 한세실업이 2024년 춘하 여성 패션 트렌드를 분석해 공개했다. 이 회사는 뉴욕, 스페인 디자인 오피스를 통해 매 시즌 급변하는 글로벌 패션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해 '갬', '올드 레이비', 'H&M', '망고' 등의 디자인에 참여한다. 섬유 소재 연구 및 개발까지 다음 시즌 선보일 트렌드를 구상해 바이어들에게 제안, 높은 채택률을 보이고 있다. 한세실업측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Y2K 트렌드가 지속되고 특히 MZ 세대의 성향에 맞춰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액티브웨어 강세도 여전하면서 다양성을 가미한 룩이 눈에 띄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세실업 R&D 본부는 2024년 S/S 여성 패션 트렌드 키워드로 스트레치 터치(Retro Touch) 트렌틀 썬머(Gentle Summer) 트림아웃(Mindful) 소프트 유틸리티(Soft Utility) 4가지 테마를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행사가 늘어나면서 수트 셋업 및 실용적인 재킷 스타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를 위한 소재로 시원한 리넨 원단 셋업을 제안했다.



## TEXTILE '마리메꼬', 지속가능한 텍스타일 프린팅 개발<sup>(6)</sup> 해조류로 인쇄를 한다고?

화려한 그래픽 패턴으로 유명한 '마리메꼬(Marimekko)'가 오리진바이오션(Origin by Ocean)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텍스타일 프린팅 기술을 도입한다. 이는 두 회사의 합일력 프로젝트 협업을 추진된 것으로 환경 화학 물질을 대체하고 '마리메꼬' 인쇄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의 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리진바이오션은 해조류 기반 재료를 연구하는 핀란드 기술 및 소재 혁신 스타트업이다. 특허받은 바이오 정제 공정을 사용해 수확된 유해 조류와 생태학적으로 양식된 해초에서 바이어 기반 화학 물질을 추출한다. 마리메꼬와 오리진바이오션은 더욱 지속 가능한 텍스타일 인쇄 공정을 재구성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마리메꼬는 인쇄 페이스트 내에

서 합성 증점제를 오리진바이오션 해조류 기반 증점제로 대체했다. '마리메꼬 X 오리진바이오션' 캡슐 컬렉션은 도미니카 공화국 해양 바이오매스로 만든 인쇄 페이스트 증점제로 인쇄됐다. 만데우니 블랙이 컬렉션으로 구성됐다. 이 제품은 핀란드, 유럽 전용 제품으로 판매된다.



1) 마리메꼬 \_ 보브, 지컷 가져온 '신세계 톰보이' K-패션 전문회사로 거듭나다, 2023년 7월 28일  
2) 케어링 그룹 \_ 데시구엘, 사친·발렌티노 2023 F/W 오뜨 컬렉션  
3) FashionUnited \_ 데시구엘, AI로 구동되는 최초의 주문형 컬렉션 소개, 2023년 7월 17일  
4) 매일경제 \_ 제페토 "생성형 AI로 누구나 아이템 만들 수 있어요", 2023년 7월 31일  
5) 패션비즈 \_ 2024 봄여름 여성 패션 트렌드 제안, 2023년 7월 27일  
6) 마리메꼬 \_ 홈페이지 보도자료, 사친, 마리메꼬